

# ‘기상청의 굴욕’

부족한 장비·인력 탓에 ‘오보’ 남발...어민들 “못믿어”  
“생업에 적잖은 피해 우려...예보 대책 마련” 한목소리

기상청의 바다 날씨 정보에 대한 어민들 불신이 높다. 관측 장비가 부족해 현지 기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예보관 한 명이 여건이 다른 육지·바다 기후를 모두 발표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에서다.

자료를 활용하는 실정이라서 신뢰성을 높일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남해에서 운용중인 해상관측장비는 20대로, 이들 장비 대부분이 파고와 수온, 수위를 개별적으로 관측해 제공 하는 수준이다. 현지 기상 상황을 중

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파고·풍향·기온 등 두 종류 이상의 해상 기상 자료 수집 장비는 신안군 앞바다·칠발도, 진도 해수서, 여수 거문도·간여도 등 5대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새벽 5시를 기해 완도, 여수, 해남 등 남해서부 앞바다에 초속 10m 이상 강한 바람과 2~

3m의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해 풍랑주의보를 내렸다. 하지만, 기상청이 완도, 여수, 고흥 등 남해서부 앞바다에 설치한 파고부이(노화도·고흥·금호도) 자료는 기상청 예보와 많이 달랐다. 이 자료로만 보면 당일 오전 7시부터 남해서부 앞바다 파고는 평균 0.3~0.5m 정도에

불과했다. 바람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했지만 장소에 따라 차이가났다. 유의의 파고는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든 곳에서 1m를 넘지 않았다. 어민들 입장에서 ‘어실권’ 기상 정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한국해양조합도 이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당시 14개 항로 가운데 완도~청산 항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의 운항을 9시부터 순차적으로 허가했다. “기상청이 풍랑주의보를 내렸지만 기항지의 선박 정보를 감안,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 풍랑특보도 비슷하다. 섬 주민들의 이동 및 어민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도, 세밀한 기상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9분  
해질 17시 26분  
달 뜨기 11시 59분

구름 낀 성탄절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맑음	-2/7℃
목포	구름맑음	-1/7℃
여수	비	2/7℃
나주	구름맑음	-6/8℃
완도	구름맑음	-1/7℃
구례	구름맑음	-5/7℃
강진	구름맑음	-4/7℃
해남	구름맑음	-5/7℃
장흥	구름맑음	-4/7℃
순천	구름맑음	-1/8℃
영광	구름맑음	-6/6℃
진도	구름맑음	-2/7℃
전주	구름맑음	-4/7℃
군산	구름맑음	-4/6℃
남원	구름맑음	-6/6℃
혁신도	구름맑음	4/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치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높음	낮음	높음
만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목포 06:49	11:57	
만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19:05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여수 01:30	07:33	
만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13:56	20:12	

◇주간날씨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날씨						
최저/최고	1/6	-2/2	-2/3	-2/5	-1/7	0/7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아이예수 탄생 축복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서 열린 성탄절 거리행진에 참가한 일곡중앙교회 신도 600여명이 행진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고검장·지검장 취임

#### “실적주의 탈피, 국민 고통 해결 집중”

##### 조성욱 광주고검장



조고검장은 처벌 일변도의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평소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봉사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기여를 존중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정연(46·연수원 25기) 공판2부장이 부인이며 장인은 광주지검장을 지낸 노승행(73·합평) 변호사이고, 판사 출신인 노현준(4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처남이어서 ‘법조계 명문가’를 이루고 있다. 부산 출신인 조고검장은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통령 민정 2비서관,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 “겸손·배려 자세로 누구 말이라도 경청”

##### 변찬우 광주지검장



변찬우(52·연수원 18기) 신임 광주지검장은 2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변지검장은 겸손, 배려, 경청의 자세를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 지역토착비리 척결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 성남지검장 재직 시절부터 조직 내부에 겸손, 배려, 경청의 자세를 심어 노력해왔다”며 “검찰이 지직을 받는 문제의 근간은 권위적, 감압적, 무관심한 자세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지검장은 또 “최근 일련의 사태는 검찰이 자신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수사팀은 수사팀대로, 결정지는 결정자대로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변지검장은 검사장 파사

### 광주 학부모단체 “토요 자율학습, 학교장에 맡겨라”

광주지역 학부모 단체가 토요일 자율학습 실시 여부를 학교장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모임’은 24일 광주시교육청의 교고 토요일 자율학습 금지 조치<광주일보 12월23일자 7면>와 관련해 성명을 내 “일선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지원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공부부를 하겠다고 학교를 찾은 학생들을 막는다니 어이 없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학교장 재량으로 구성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수능이 끝난 후 일선 학교는 2학년을 고3 체제로 전환해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희망하면 토요일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

만 교육청이 토요일 자율학습 금지 공문을 보내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대학 입시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의 기대부담을 가중하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경찰청장 장전배·전남경찰청장 정순도

#### 경찰청 치안감급 인사

#### 전북청장엔 전석중씨

장전배 경찰청 보안국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정순도 광주지검장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제1차검장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경기청 1차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고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동생인 서범수 경찰청 교통국장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승진해 이동했다. 김양제 서울청 기동단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정태용 서울청 수사부장은 경기청 2차장으로 각각 승진하며 이동했다. 치안감 21명에 대한 진보 인사도 이뤄져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장전배 경찰청 보안국장,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각각 내정됐다. 전석중 전남청장은 전북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장 광주청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주교과 경찰대(1기)를 거쳐 1985년 임용된 후 무안서장·서울청 교통지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치안감으로 승진해 전북청장·제주청장·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지냈다. 정순도 전남청장은 화산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거쳐 1981년 3월 간부후보생 29기로 경위에 임용, 광주청·강원청 차장을 거쳐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청 차장·광주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 2만4천명 인물정보 한눈에... ‘2014 한국인물사전’ 발간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4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4 한국인물사전'이 출간됐습니다.

국내 각계각층 주요 인사 2만4천여 명의 프로필을 담은 국내 최대 인물사전 '2014 한국인물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펴낸 '2014 한국인물사전'은 정·관계를 비롯해 경제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체육계·종교계 등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두루 망라하고 있으며, 자세한 인물 정보와 함께 사진까지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 대통령 직속기관의 주요 인사, 행정 각 부처 장·차관, 처장, 청장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최고위 공무원 200여 명을 한곳에 모아 별도의 섹션으로 편집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록 인사들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촉했고 인터넷 자료와 관련 문헌도 꼼꼼하게 참조했습니다.

2014년판에는 국내인물 2천여 명을 추가했고, 수록인물도 많이 바뀌어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전 판까지 실었던 북한과 재외동포 인물은 제외했습니다.

■ 국배판·상권 1천 252쪽 / 하권 1천 284쪽  
■ 가격 : 18만원



구인 서울(02)398-3590~3 경기(031)238-2222 인천(032)427-1236 대전·충남(042)521-9705 광주(062)264-0064  
문의 청주(043)225-6005 전주(063)232-7652 경남(055)281-0010 부산·울산(051)441-7400 대구(053)365-3800

